

일 주 문



승려 안거 해제
총관 천태종 총무원장 스님은 3월 16일 밤 10시 단양 구인사 삼보당에서 '승려 안거 해제식'을 봉행한다.



어르신 경로행사
정법 서울 흥천사 회주 스님은 3월 19일 오전 11시 지역 어르신 1500여 명을 대상으로 대중공양과 의료·미용봉사를 실시한다.



춘계 성지순례
영관 구례 화엄사 주지 스님은 3월 20일 청도 운문사와 사리암에서 춘계 성지순례를 실시한다.



약사천일 800일 기도 입재
경우 고창 선운사 주지 스님은 3월 13일 경내 대중보전에서 '약사천일 800일 기도 입재식'을 봉행했다.



금강불교대학 입학식
경해 서울 구강사 주지 스님은 3월 27일 오후 2시 경내에서 '구강사 금강불교대학 입학식'을 개최한다.



탐골문화예술학교 입학식
희유 서울노인복지센터장 스님은 3월 9일 관내에서 '2016 탐골문화예술학교 입학식'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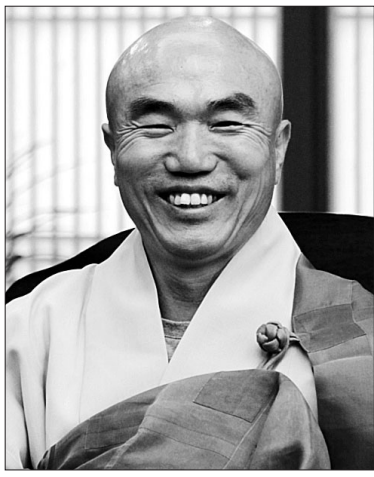
인사 법무법인 인본(대표 김종규)이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19 정우빌딩 5층으로 이전했다. (02)596-9400

익명 불자, 조계종복에 1억여원
상속연금보험 가입금액 전액

익명의 여성 불자가 불교계 복지발전을 위해 상속연금 1억3000만원을 자비 보시했다. '선주명'이란 법명의 여성 불자는 한 은행의 상속연금형 청약 상품 가입하고, 사후(死後)에 주계약 가입금액 1억3000만원 전액을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약정했다. 상속연금보험을 통한 사후(死後) 기부는 재단 창립 이래 최초다. 이 후원자는 "남은 생을 다른 이들과 나누며 살고 싶은 마음에 기부를 결심했다"며 "이번 사례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눔에 동참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기쁘고 감사한 일"이라고 전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정밀조사로 문화재 인식 제고”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
신임소장 일감 스님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가 올해 전국 사찰의 목판의 일제 조사를 진행한다. 또한 중요 폐사지 시·발굴 조사도 이뤄진다. 불교문화재연구소 신임소장 일감 스님(사진)은 3월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올해 주요 사업은 △불교문화재(목판) 일제조사 △폐사지 기초조사 △중요폐사지 시·발굴조사 △불교문화재 정책 연구 등이다. 기본적으로 연속 사업인 경우가 많으나 불교문화재를 발굴·연구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업들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사찰 목판 일제조사 사업이다. 2014년 시작된 목판 일제조사는 2019년 마무리된다. 올해에는 부산과 경상도 지역의 사찰 18곳, 모두 4천 180점의 목판이 조사 대상이다. 2014년 조사 완료한 인천·경기, 충청도 지역 중요 목판에 대한 인출 작업도 이

사찰 목판·폐사지 조사 등 불교문화재 연구 사업 진행
성보의 문화적 접근은 과제

되며, 양산 통도사 성보박물관·하동 쌍계사 화엄전 소장 목판 및 수장처의 보존환경도 조사된다. 또한, 불교문화재연구소는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온 폐사지 조사도 지

속적으로 실시하며, 경주 미탄사지·삼척 흥천리 사지·완주 경복사지 등 중요 폐사지에 대한 발굴조사도 진행한다. 이 같은 폐사지 조사 사업은 폐사지의 보존·관리와 활용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크다. 폐사지를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 문화 관광자원 개발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현대적 가치로의 재창조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전문적 영역에 머물러 있는 문화재 연구·조사를 대증적으로 알기 쉽게 계량화하는 것은 여전히 연구소가 가져야 할 화두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일감 스님은 “불교 문화재를 국민들에게 불교적 시각뿐만 아니라 문화적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같은 발전 방안은 여전히 우리의 숙제로 남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불교문화재연구소는 남원 실상사 학술조사·군위 인각사 종합정비구역 발굴·강릉 오죽헌 구조정밀 안전진단 후속 모니터링 등의 사업을 올해 중 진행할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molp79@hyunbul.com**

중도육영재단, 장학금 5천만원
불교인재원 추천 청소년 70여 명에게 전달



(재)중도육영재단(이사장 엄상호)은 지난 2월 20일 불교인재원의 추천을 받은 청소년 70여 명에게 장학금 5000만원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중도육영재단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및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선발해 매년 세 차례에 걸쳐 250여 명에게 약 1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윤호섭 기자**

충남섬유, 연꽃생협에 먼티 3천장
취약계층 지원시설에 전달



섬유제품 제조 및 수출기업 (주)충남섬유(대표이사 진영식)가 최근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먼티 3000여 장을 연꽃생협(이사장 전주호)에 기부했다. 연꽃생협은 “충남섬유가 지난달 24일 취약계층 여성들에게 전달해달라며 여성 반팔면티 3023점을 기부했다”고 3월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꽃생협은 기부 받은 의류를 서울·경인지역 미혼모보호시설과 모자원에 전달하고 있으며, 여름까지 여성보호센터·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정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윤호섭 기자**

美 대학원생들 불국사서 ‘힐링’
필라델피아 경영대학원생 템플스테이



미국 필라델피아 경영대학원 학생 25명이 3월 9~10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에서 템플스테이를 체험하며, 불교문화를 배우는 시간을 보냈다. 이들은 1박2일간 사찰문화재 탐방·연등만들기·예불·108배 및 좌선·스님과의 대화 등을 체험했다. **윤호섭 기자**

성역화 불사기금 전달 잇달아

마곡사 1억 원 등 전국서 도움의 손길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사업을 위한 청사진이 그려지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전해지고 있다. 공주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은 3월 8일 (재)아름다운동행(대표이사 자승, 이하 동행)에 성역화 기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진행됐다. 동행 대표이사 자승 스님은 원경 스님에게 “여러모로 사찰 사정이 어려울 텐데 성역화 사업에 동참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원경 스님은 “성역화 불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향후 각 사찰에서 템플스테이 활성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이밖에도 공주 신원사 주지 중하 스님(1000만원), 세계명상대전 조직위원회 각산 스님(1000만원),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명선 스님(500만원) 등이 성역화 불사에 동참했다. **박아름 기자**

미얀마 오지마을에 자비 씨앗을

로터스월드, 3월 6일 토깨마을 사찰학교 준공

(사)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는 3월 6일 미얀마 양곤 토깨(Taw Cay) 마을에서 사찰학교 준공식을 개최했다. 지난해 10월 착공한 토깨마을 사찰학교는 지상 1층 3개 교실(각 100㎡), 화장실 4칸 규모다. 이와 함께 책걸상 및 책장, 교과서, 1000여 권 동화책 등을 지원했다. 건립 후에는 의령 연화사 주지 진성 스님이 동참했다. 로터스월드 측은 “토깨마을은 양곤지역에서 육로로 3시간 이상 차를 타고 가야하는 오지마을이다. 현재 마을주민 1000여 명과 초·중·고등생 208명은 학교시설 부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학교 건립은 토깨마을 사찰이 운영 중인 고아원과 함께 아동들의 학습 및 진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설명했다.



이날 이사장 성관 스님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생활하는 토깨마을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학생들이 부디 각자의 꿈을 향해 열심히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건립 후원자 진성 스님은 “토깨마을 아이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토깨마을 사찰주지 위니파(Won Ni Ta) 스님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박아름 기자**

봉

2016년 세계평화와 남북평화통일 성취를 위한 백령도 영산대재

행



1973년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로 등록된 영산재는 한국의 전통 종교인 불교와 한민족 고유의 정서가 어우러져 수백 년째 전승되어오는 국내 최대의 공연문화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됨으로써 명실공히 세계인의 문화로 발돋움 하였습니다.

봉원사 영산재보존회는 세계평화와 남북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영산대재를 대한민국 서북단 백령도에서 시연할 계획입니다.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산에서 행한 설법인 영산회상(靈山會相)을 오늘에 재현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법회입니다. 또한 영산재는 살아 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모두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번뇌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이교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의식입니다. 아울러 영산재 보존회에서는 우리나라는 분단으로 겪은 2002년 6월 20일 연평도 포격 사건과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순직한 군, 장병들의 넋을 기리고 왕생극락을 발원하는 영산대재를 봉행합니다.

남북평화통일을 위한 영산대재 행사는 한국 불교 최대 공연예술인 영산재가 담고 있는 온 국민의 염원인 남북통일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우리 민족의 통합과 국운융성을 기원하며 중생구제의 뜻을 널리 알리고자 기획했습니다.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16년 4월 18일 ~ 4월 19일 (1박 2일)
- 장 소 : 대한민국 서북단 백령도
- 주 최 : (사) 한국불교영산재보존회
- 주 관 : 한국불교 태고종 봉원사,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보존회
- 후 원 :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옥천범문대학, 한국불교신문사, 봉천회, unesco한국위원회

(사) 한국불교영산재보존회

주소 : 서울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전화 : 02)392-3007,3008, 전송 393-9450 담당:이석천
홈페이지 : www.bongwonsa.or.kr

